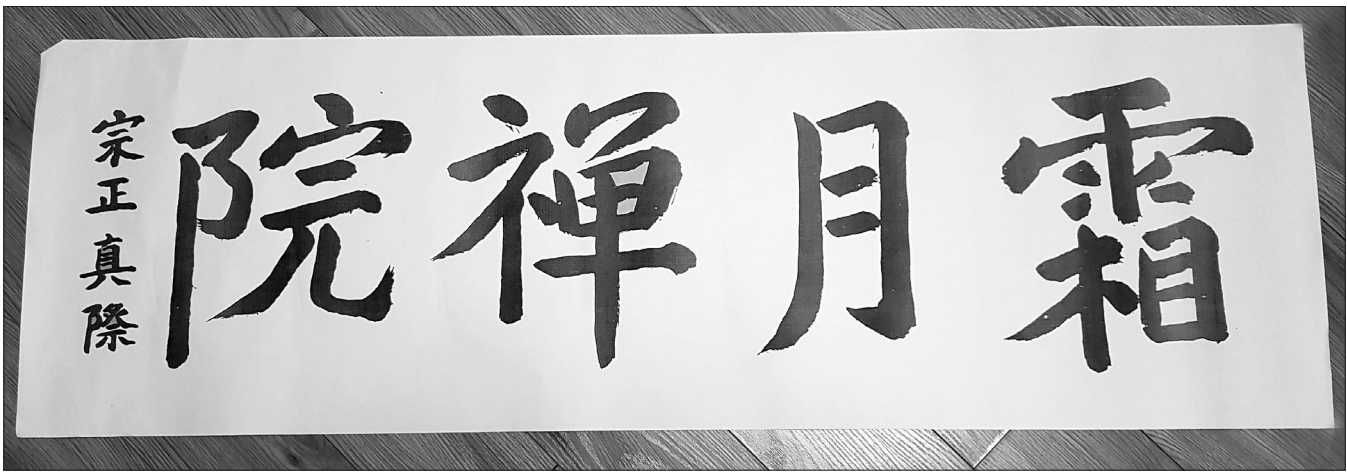


‘위례천막결사’에 사찰·신도회도 속속 동참

대흥사, 위례 천막법당에서
매월 ‘대다라니 108독’기도
조계·봉은·수국·봉국사 등도
결사대중 외호하며 수행정진
중앙신도회, 철야정진 계획
4일, 위례천막법당서 봉불식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은 최근 9명 스님들의 ‘위례천막결사’ 소식을 접하고 격려하며 ‘상월선원’의 현판을 직접 썼다.

9명 스님이 한국불교종흥을 발원하며 위례신도사에서 천막결사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교구본사와 개별사찰, 중앙신도회도 ‘위례천막결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속속 밝히고 있다. 천막 하나에 의지해 휴함과 배고픔을 견디며 정진하는 결사 대중들을 외호하면서 수행과 기도를 통해 스스로의 일상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위례천막결사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한국 불교의 수행전통을 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행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 대흥사(주지 범상 스님)는 위례천막결사 법당에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천수대다라니 108독 기도법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범상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이후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천수대다라니 108독 기도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대흥사는 최근 위례천막결사 소식을 접하고 기도 장소를 위례법당으로 옮겨 열기로 했다. 12월과 내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 대흥사 대중스님들과 신도들이 위례천막법당을 찾아 대규모 ‘천수대다라니 108독 기도법회’를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범상 스님은 “종단에서 주요 소임을 맡으셨던 스님들이 한국불교종흥을 발원하며 생사를 건 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 시대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뜻깊은 불사”라며 “대흥사 대중과 신도들도 이 길에 동참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다라니기도는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고 호법(護法)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위례천막결사가 원만히 회향되기를 기원하며 신도들과 함께 다라니기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보박물관에 봉안된 석조여래부처님을 위례천막법당에 이운하기로 한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도 위례천막결사에 동참한다. 화엄사 스님과 신도들은 11월11일 위례천막결사 입제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천막법당을 찾아 결사대중들을 외호하면서 수행법석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주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 스님),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 등 교구본사 대중들도 위례천막결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천막결사 현장에서 수행기도

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례천막결사 외호대중들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개별사찰 단위에서도 동참 계획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수국사 대중들은 신도회 차원에서 릴레이 기도법회를 열기로 했다. 삼산오오 단위로 조를 편성, 위례천막법당에서 수행정진 기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도 위례천막결사에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수행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결사기간 동안 사경과 염불 수행프로그램 등을 매주 진행하면서 수행정진 열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성남 봉국사도 위례천막결사 대중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호에 나서는 한편,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매일 사시기도(오전 10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주말 등을 이용해 위례천막법당에서 기도하는 대중들과 연합법회를 개최하는 등 위례천막법당이 한국불교의 수행중심지가 되도록 만들 계획이다.

봉국사 주지 해일 스님은 “위례천막결사에 나서는 대중스님들과 불자들이 한

국불교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모은다면 한국불교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위례천막결사가 진행되는 법당에서 목탁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위례천막결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참여일정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신도회 차원에서 매주 철야기도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위례천막결사는 치열한 수행을 통해 한국불교를 바꾸보겠다는 스님들의 결연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중앙신도회도 이 같은 스님들의 노력을 받들어, 불교적 방식으로 한국불교와 우리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례천막결사 대중들은 11월4일 오전 11시 화엄사에서 모셔온 석조여래부처님 이운 봉불식을 진행하고, 결사 입제에 앞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법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요영 기자 oyemc@beopbo.com

수지, 난치병 환아 위해 1억원 쾌척

10월10일 생명나눔실천에 전달
누적액 4억원 상당...지속 후원

가수 겸 배우 수지(사진)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생명나눔실천본부에 1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10월10일 “수지씨가 26번째 생일을 맞아 생명존중 확산운동 및 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해 달라며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수지씨가 생명나눔과 인연을 맺은 것은 생명나눔 활동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 온 그의 어머니 덕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수지씨 역시 2016년부터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꾸준한 후원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2016년 난치병 어린이 지원을 위



해 1억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Let’s share the heart’ 캠페인을 통해 4400만원을 기부한데 이

어 생명나눔이 매년 연말 달동네 백사마를 주민들을 위해 진행하는 ‘따뜻한정 나누기’ 행사에도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생명나눔 측은 “현재까지 수지씨가 생명나눔에 기부한 금액만4억 원에 달한다”며 “생명나눔은 수지씨가 기부한 1억원을 백혈병, 소아암 등의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명상으로 사회갈등 치유할 수 있을까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주관

10월26일 역사문화기념관서

내면의 성찰을 통해 개인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이사장 인경 스님)는 10월26일 오후 1~5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5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알아차림 명상과 자비수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알아차림과 자비수행과의 관계, 불교명상이 사회갈등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지, 자비수행 개념의 표현 양상과 적절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찰한다.

첫 발표자인 장우혁 명상심리학 박사는 ‘자기자비의 연구동향’을 통해 그동안 발표된 250여편의 관련 논문을 꼼꼼히 분석한다. 자기자비는 초기불교의 관점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장 박사는 기존 연구 성과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연구 성향과 한계, 나아가 자기자비 관련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이필원 동국대 교수는 ‘자·비·하사의 수행론적 성격’을 구명한다. 이를 통해 사무람상의 4가지 덕목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이들이 수행론적 측면에서 갖는 의미와 성립과정을 고찰한다.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 인경 스님은 ‘영상관법: 염지관명상과 자비의 소통’을 다룬다. 인경 스님은 감정조절이 중

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알아차림 명상과 자비 소통은 감정을 조절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에 주목한다. 명상은 내적인 통찰을 강조하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자비의 소통은 타인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아무런저주어 상대를 깊이 이해토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인경 스님은 명상과 자비소통이 모두 필요한 시대에 명상을 통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안양구 동국대 교수도 ‘알아차림과 자기 공감과의 관계’를 자기공감 명상(MSC, Mindful Self-Compassion)을 중심으로 알아차림 명상과 공감명상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논평은 김정중(동양대), 박재용(동국대), 임세라(능인대), 문진건(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가 각각 담당한다. 특히 발표와 논평이 끝난 뒤 열리는 종합토론에서는 명상과 사회갈등 치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2007년 창립 이후 직관적인 동양의 가치를 대변하는 명상과 서구 과학을 대변하는 심리상담을 융합해 명상심리상담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특히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간관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명상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02)2236-5306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소외이웃 위한 자비행...자원봉사 보수교육

10월10일 직할봉사단 보수교육

불교 사회복지 현장 곳곳에서 자비실천에 매진하는 조계종 직할자원봉사단이 보수교육을 통해 다시금 활력을 다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형 스님)은 10월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직할자원봉사단 하반기 보수교육(사진)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신규봉사단원 환영식을 진행했다. 염불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불교자원봉사 기본교육 등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을 수료한 총 22명의 신규자원봉사자를 대표해 9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조계종자원봉사단 단원증과 단복을 수여했다. 한편 조계종복지재단은 10월 20일, 27일 양일간 43기 불교자원봉사교육 주말반을 진행한다.

송지희 기자

“불교 다문화 복지 반드시 필요한 분야”

■1면에서 이어짐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법보신문사가 진행한 협약식에서 보인 스님은 “불교계 다문화 복지분야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상당수가 불교국가 출신인만큼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형구 대표는 “법보신문은 10여년간 이주민·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제 일일시호일을 발판으로 보다 불교적이면서 안정적인 사업 형태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복지재단과의 협약이

법보신문은 물론이고 복지재단, 그리고 불교 사회복지를 일보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보신문은 2008년부터 이주민·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의료비를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2016년 공익법인 ‘일일시호일’을 출범, 활동 범위를 확대해 왔다.

또 조계종 복지재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이주민·다문화 지원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 종로구를 비롯한 전국 7곳에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한국미술사연구소 ‘흥천사 불화’ 학술대회

10월19일, 국립중앙박물관

문명대 명예교수 기조강연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10월19일 오후 1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2강의실에서 ‘600년 왕실원찰 서울 흥천사 불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미술사학회가 주관하고 한국미술사연구소와 서울 흥천사가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흥천사와 19세기 집중 봉안된 왕실발원 성보문화재 불화를 조명하는 자리다. 현재 흥천사에는 비로자나괘불도와 아미타불회도, 극락구품도 등 12점이 봉안돼 있다. 이중 극락구품도는 1885년 왕실 후원으로 조성돼 왕족들이 극락왕생을 염원했다는 불화라는 점, 점과 화면을 9등분한 화면 분할식 특징을 대표하는 원조



흥천사 극락구품도.

격 불화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최응선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학술대회는 흥천사 회주이자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

님의 축사로 막을 올린다. 1부에서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흥천사 왕실발원 불화의 성격과 극락구품도의 도상 해석학적 연구’를 주제로 기조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조 설립...규약 등 제정

노조위원장에 김한일씨 선출

창립총회 이어 설립신고 완료

민주노총 외부세력 개입 거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들이 단위노조를 설립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동조합(위원장 김한일, 이하 조계종 중앙노조)은 10월11일 종로구청에 입원과 가입서를 제출한 조합원 명단, 규약 등을 구비해 설립신고서를 접수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관한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허위사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일내 신고증이 교부돼 노조가 구성된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노조는 10월10일 서울 모처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통과시켰다.

중앙종무기관에 종사하는 종무원 60명은 이날 노조위원장에 김한일 재무부 회계팀장, 부위원장에 이선화 직할교구 사무처 팀장, 사무국장에 송재일 기획실 기획팀 행정관을 선출했다.

조계종 중앙노조는 규약에 제3자의 개입을 거부하고 자주성을 강조하는 등 설립목적을 분명히 했다. 규약에 따르면 노동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한다. 또 사부대중에 게 든든한 도반이 되고 스스로 주인 되는 삶과 일터를 만들며, 부처님 지혜와 자비의 뜻을 사회에 실현하고자 노력한다고 명시해 불자이자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당초 설립 추진과 동참을 호소한 입장문에서도 “외부단체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 개입을 거부한다. 임금과 복지, 처우 등 스스로 종무원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조계종지부가 각종 소송을 제기해

갈등과 혼란을 조장했다고 지적하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중앙종무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종무원들이 가입된 종무원조합 원우회와 통합 여부,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 등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관계 법령에 따르면 노조가 2개 이상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조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로 조직된 단체가 단체교섭 대표성을 갖는다.

김한일 조계종 중앙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와 같이 민주노총 등 외부의 제3자가 우리의 삶과 일터에 간섭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사용자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종무원 조합과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노동자이자 불자인 종무원들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대한불교진흥원 화요열린강좌

10월15일 강소연 교수 초청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10월15일 서울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화요열린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는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가 ‘문화 코드로 읽어내는 우리의 명화, 불화(佛畵)’를 주제로 불화 속 스토리를 읽어내고 삶의 지혜와 가치를 느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화요열린강좌는 참가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 일시 : 10월15일 저녁 7시
- 장소 : 다보빌딩 3층
- 문의 : 02-719-2606